“유기동물 보호부터 입양까지”…광주동물보호센터 개소

유기동물 200마리 수용…보호실·입양상담실·수술실 등 구비

시, 동물 복지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원·놀이터 등 조성 예정

광주시가 ‘동물 복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버려지는 동물을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새 동물보호센터가 문을 열었고, 기존 동물보호소는 유기고양이 전문 보호시설로 재단장된다.

◇하루에 개·고양이 7두꼴로 버려져= 광주지역에서 지난해 하루에 7두 꼴로 개나 고양이 등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유기·유실된 동물은 총 2595두에 달한다. 이 중 개는 1236두, 고양이는 1270두 등이다.

2022년 3138두, 2023년 3043두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루에 7두 꼴로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들이 주인에게 버림받고 있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입양 비율은 높고 안락사 비율은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 중 보호시설에서 자연사를 한 동물이 39.6%(1029두)로 가장 많았다.

12.6%(326두)는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고, 26.7%(692두)는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됐다. 안락사는 13.6%(354두)였다.

◇광주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오픈= 광주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광주동물보호센터’(센터)가 문을 열었다.

그동안 민간 동물복지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되던 광주시 동물보호소가 문을 닫고 인근 부지에 센터를 새롭게 지어 광주시가 직접 운영에 나선 것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있는 ‘광주동물보호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 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을 안락사 하지 않고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사육시설을 확충하면서 불법 증축 민원까지 제기됐다.

좁은 면적에 많은 유기동물이 외부에 천막 형태의 사육장에서 보호되면서 소음과 악취 등에 시달렸던 광주동물보호소가 내부 격리된 케이지로 변경돼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했다.

지하 1층~지상 2층 3307㎡(1000평) 규모로 지어진 광주동물보호센터는 200두의 유기견 수용이 가능하다.

1층에는 사무실을 비롯해 미용·세탁실, 수의사실, 검진실, 대형견 보호실이 마련됐고 2층에는 중·소형견 보호실과 자원봉사자실, 입양상담실, 수술실, 방사선실, 사료실 등이 구비됐다.

24일 오전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들어선 ‘광주시 동물보호센터 개소식’에 참석자들이 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유기견을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2층에는 입양상담실이 있어 수의사 등을 통해 입양, 임시보호(버려진 애완동물을 분양할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는 것) 관련 상담은 물론 입양 전 사전교육도 받을 수 있다.

본촌동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던 ‘소음’ 문제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센터 내부에는 방음시설이 설치돼 센터 밖으로는 유기견의 짖는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다는 것이다.

◇기존 보호소는 유기고양이 전문시설로 = 광주시 동물보호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면서 기존 동물보호소는 환경개선 공사를 거쳐 유기 고양이 전문 시설로 탈바꿈한다.

광주시는 농림식품부의 반려동물인프라구축사업비(국비 4억원)을 확보해 올해 4월부터 12월 까지 노후화된 기존 보호소를 리모델링을 한다.

새로운 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기존 동물보호소(부지 2263㎡·건축 636.66㎡)에서 비어있는 견사 등을 활용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설치된 가설 건축시설을 철거하고 내·외부 환경개선을 통해 유기 고양이 전문 보호공간을 만들고, 입양 카페와 사무공간을 설치한다.

공사기간에는 이미 입소중인 고양이들은 광주시 캣맘협의회의 협조 등을 통해 임시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유기견과 유기고양이를 분리 보호할 수 있게 돼 전염병 교차 감염을 차단하고 폐사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미선 광주시동물보호정책팀장은 “동물보호소에 입양카페도 설치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유기동물 입양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29만 시민을 위해 영산강 대상공원 일대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반려동물 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서구·남구·북구에 ‘반려동물 놀이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교육청, 교육 대전환 5대 정책 제안…대선 공약 제시

대선 출마 후보·정당에 제안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남교육청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정책과제를 24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현실을 반영해 대입제도부터 교원 정책, 교육복지, 인재 육성까지 교육정책 전반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 교육청이 제시한 5대 정책과제는 대입제도개편,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학생교육수당 전국 확대, K-에듀센터 설립,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 등이다.

대입제도·대학체재 개선으로는 교육재정 균등분배를 통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 육성과 대학 서열화 해소,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수능 제도 개편 등을 요구했다.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을 제안하고 소규모 학교에도 충분한 교원을 배치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 양성 채용·권한도 교육감에게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또 전남교육청이 최초로 시작한 학생교육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역의 교육자산을 세계와 연결하는 K-에듀센터 설립도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다문화 시대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기획조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확정해 21대 대선에 출마할 후보와 각 정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지금은 대전환 시대이며, 이 전환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한다”라며 “전남에서 시작한 글로컬 교육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도, 글로벌 의약품·바이오 투자 유치 총력

국제의약품·바이오 산업전 참가…바이어 기업 맞춤 투자 상담 진행

전남도가 글로벌 의약품 및 바이오 산업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5일까지 5일 간 순천시, 장흥군과 함께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5회 국제의약품·바이오 산업전’에 참가했다. 〈사진〉

전남의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등 바이오 기업 유치에 총력을 쏟기 위해서다.

전남도는 바이오를 차세대 산업을 보고 선제적인 육성에 나선 상태다. 바이오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이끌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이번 산업전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 투자 인센티브와 보조금 지원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며 전남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소개한다. 또 바이오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세제 혜택 등 맞춤형 투자 상담도 진행한다.

순천시 승주읍 소재 ‘그린바이오 산업 전문단지’를 비롯해 지역의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집중 홍보하고, 친환경 바이오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 유치 활동도 벌인다.

장흥군은 ‘바이오식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바이오 식품산업의 가능성을 소개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 확대 방향을 논의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이명노, 군공항 이전 부지에 테마파크 유치 제안

광주 군공항이 이전하면 공항부지에 초대형 테마파크를 유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명노(서구 3선거구)광주시의원은 광주 군공항이 이전될 경우 부지 중 절반(396만6942여㎡)을 활용해 디즈니랜드급 초대형 테마파크 유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광주의 주요 관문인 KTX 송정역이 2027년 개통 예정인 무안국제공항 철도와 직접 연결될 예정”이라면서 “송정역은 전국 고속철도망과 직결돼 있는 상황에서 공항 부지에 테마파크가 들어오면 타지 방문객들이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항 이전 이후 부지를 획일적으로 일반 분양하기보다, 절반은 글로벌 콘텐츠 유치에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절반은 프리미엄 부지로 전환해 광주 재정과 도시 활력 모두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에는 1만 명 이상의 직접 고용, 4~5만 명에 달하는 간접 고용 유발, 연간 2조원 이상의 관광 소비 효과, 도심 외곽 부지의 분양가 2~3배 상승, ‘광주=디즈니랜드·AI·문화’라는 도시 브랜드의 재정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대기환경관리 5개년 계획 마련

광주시가 대기환경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2시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제2차(2025년~2029년) 광주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체계적이고 광역적 대기질 관리를 위한 제2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